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2025.12.(제 10호)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특성을 통해 본 서울시 정책 과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재단의 관련 분야 연구 실적]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 및 정책과제(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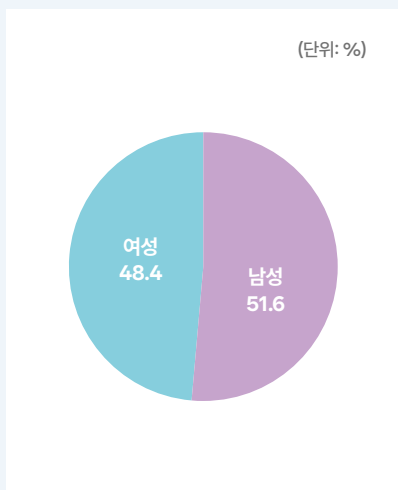
디지털성범죄 정책대응 강화방안 연구(2022)

서울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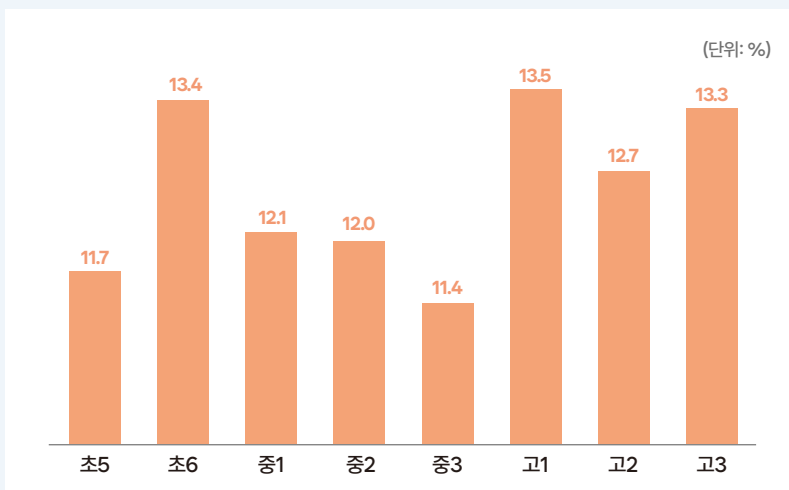
2021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 신설 이후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피해 실태가 파악되지는 못했다. 본 리뷰는 서울시 아동·청소년 2,3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그루밍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9.0%가 온라인에서 원하지 않는 메시지 수신, 성적 제안 등의 그루밍 피해를 경험했고, 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은 폭력 경험·외로움·의사소통 어려움 등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온라인 그루밍 피해의 특성상 가해자를 제약하는 선제적 예방이 필요하며, 이에 기술 기반 대응 시스템 구축, 심리·정서 지원 강화 등의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 「서울시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경험 및 안전 인식 실태조사」 개요

- ▶ 조사대상: 서울시 소재 초5~고3 재학생 2,316명(성별·학급별·권역별 인구비례 할당)
- ▶ 조사방법 및 기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 2025.4.7. ~ 2025.5.12.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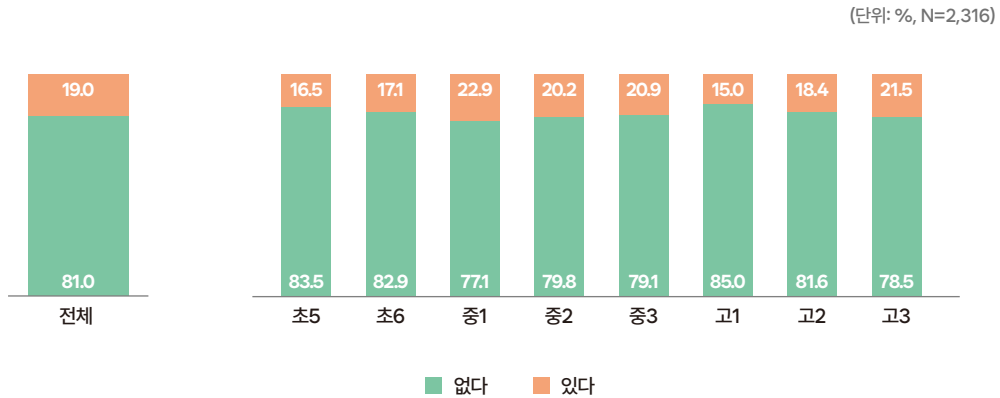
[연령(학년)]

* 본 리뷰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서울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실태조사」(김보화·김수연, 2025)를 바탕으로 작성됨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그루밍 피해율과 주요 피해 유형

○ 서울시 아동·청소년 19.0%, 온라인 그루밍 피해 경험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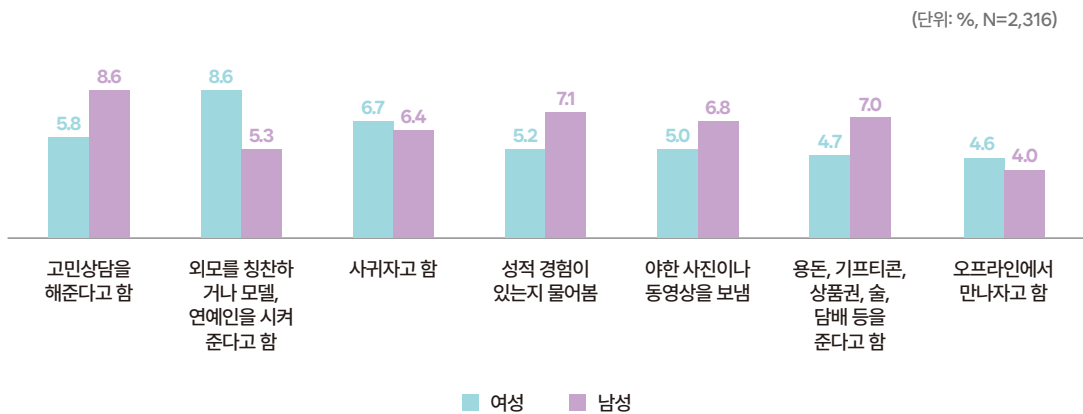
- 서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 2,316명 중 온라인에서 원하지 않는 접근을 받아본 응답자는 19.0%로, 학년별로는 중1과 고3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1| 온라인 그루밍 피해율(전체, 학년별)

○ 여성 아동·청소년은 친밀감 유인, 남성 아동·청소년은 보상·게임 유인, 그루밍 접근 방식에서 성별 차이 드러나

- 피해 유형에서 ‘외모를 칭찬하거나 모델, 연예인을 시켜준다고 함’, ‘사귀자고 함’,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함’의 피해율은 여성 아동·청소년이 더 높게 응답함.
 - ‘고민상담을 해준다고 함’, ‘용돈, 선물, 기프티콘, 상품권, 게임 아이템, 술, 담배 등을 준다고 함’, ‘성적 경험이 있는지 물어봄’과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 보냄’에는 남성 아동·청소년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2| 온라인 그루밍 주요 피해 유형 7개(성별)

- 가해자들은 여성 아동·청소년에게는 외모, 연예인에 대한 관심, 친밀한 관계 욕구 등을 주요 접근 수단으로 활용하고, 남성 아동·청소년에게는 고민 상담, 금전 또는 게임 아이템 제공, 성적 관심 유도 등을 통해 접근하는 경향이 나타남.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와의 관계 및 온라인 검색 내용에서의 성별 차이

○ 가해자와의 관계 : 여성 아동·청소년은 비면식 접촉, 남성 아동·청소년은 또래 접근이 우세

- 가해자와의 관계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한 피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남. 여성 아동·청소년은 '온라인에 만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거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남성 아동·청소년은 '친구, 선·후배 등 또래'의 비율이 가장 높게 응답됨. 이에 성별 차이가 반영된 예방 정책이 필요함.

(단위: %, N=온라인 그루밍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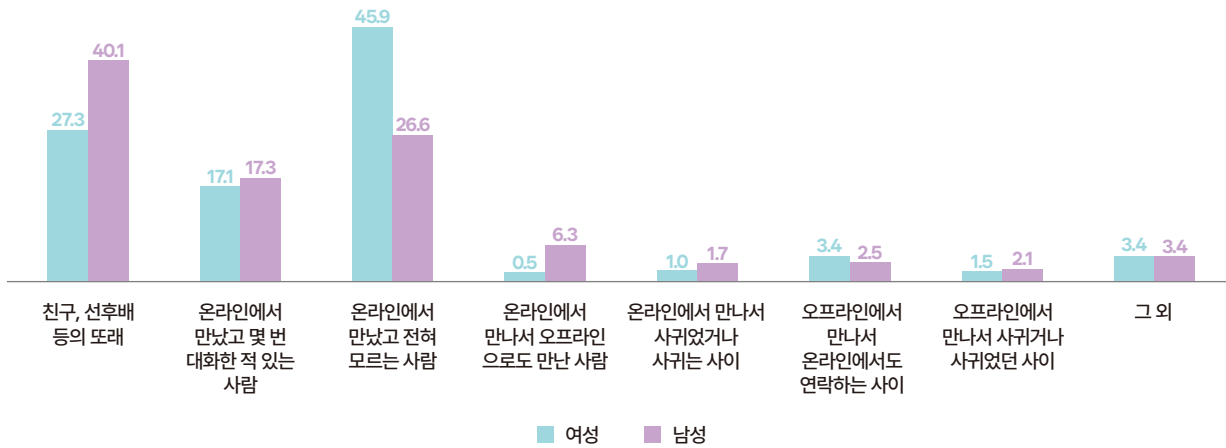


그림 3 |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와의 관계(성별)

○ 일상적 대화로 접근 : 여성 아동·청소년은 '고민상담·K-pop' 남성 아동·청소년은 '게임·용돈' 검색 시 노출 증가

- 가해자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기억에 나지 않을 정도로 일상적인 대화로 접근하고 있었음. 여성 아동·청소년의 경우 '고민상담'이나 'K-pop' 등을 검색할 때 접근을 많이 경험하였고, 남성 아동·청소년의 경우 '무료 게임 아이템'이나 '용돈 버는 법' 등을 검색할 때 접근을 받아본 비율이 높았음. 가해자들은 아동·청소년들의 관심사를 이용하여 접근하고, 대화 과정에서 생활반경과 온라인 활동을 추적함.

(단위: %, N=온라인 그루밍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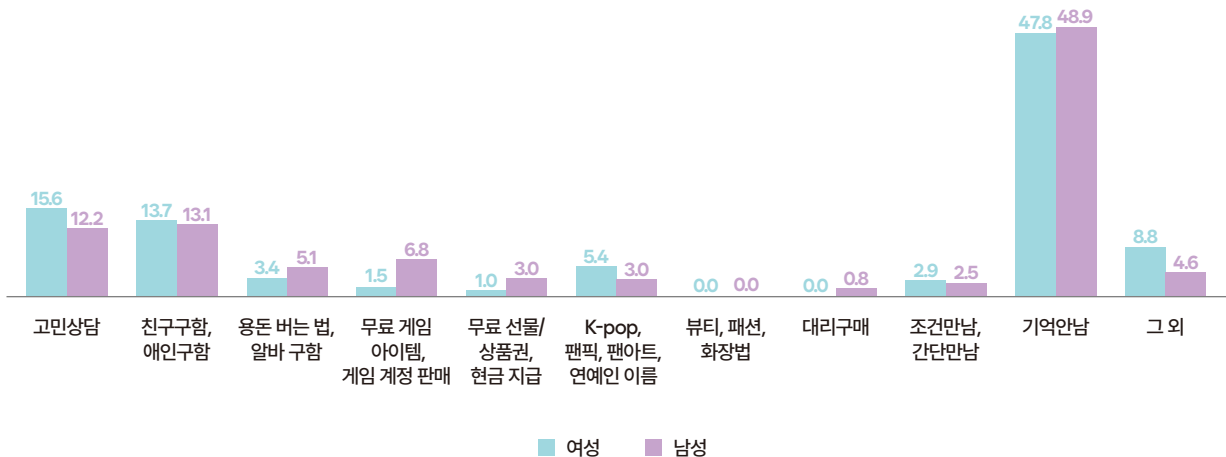


그림 4 | 온라인 그루밍 피해 시 검색 내용(성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유무에 따른 폭력 피해 경험 및 온라인 안전 인식의 차이

○ 폭력 피해 및 위험 행동 경험과 피해 경험의 관련성 확인 : 가해자 접근 차단을 위한 예방 체계 필요

- 온라인 그루밍 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폭력 피해 및 위험 행동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온라인 욕설·따돌림·괴롭힘’과 ‘학교폭력’ 경험 비율에서 집단 간 격차가 두드러짐. 이러한 결과는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표적화할 가능성을 보여줌.
- 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도 폭력 피해나 위험 행동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온라인 그루밍 피해가 특정 개인의 문제나 일탈적 행동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우며, 아동·청소년을 통제하기보다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예방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함.

○ 온라인 안전에 대한 우려

- 온라인 사용 시 안전에 대한 우려 정도를 5점 척도로 묻은 결과 모든 집단에서 ‘누군가 나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성적인 범죄에 활용될까봐 걱정한다’의 우려도가 가장 높았음.
- 특히 여성이고, 피해 경험과 목격 경험이 있는 집단의 우려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는 부모님, 선생님, 경찰 등 주변 성인에 대한 신뢰도 존재하고 있음.

표 1 | 평소 온라인 안전에 대한 우려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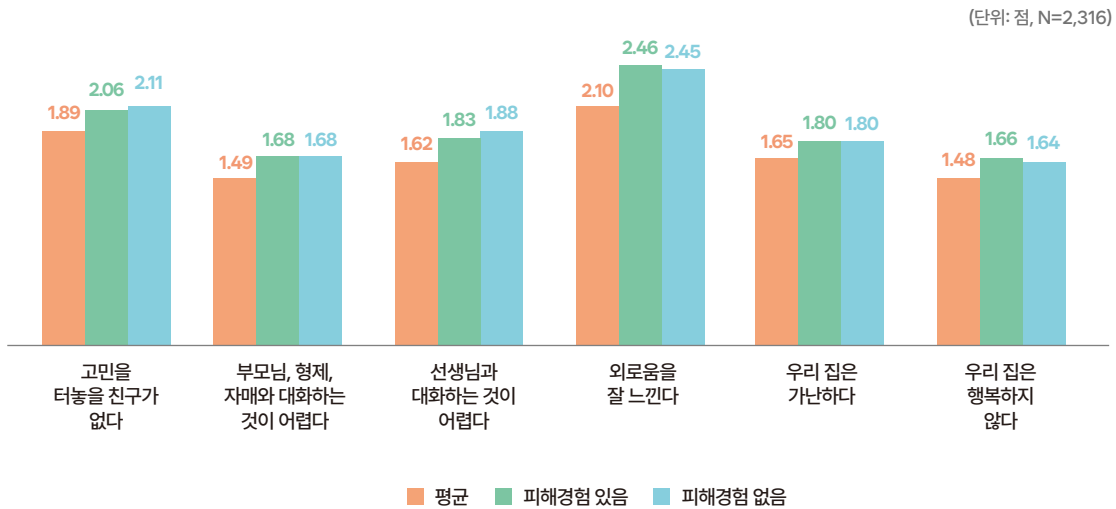
구 분		온라인에서 욕설, 따돌림을 당할까봐	나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활용될까봐	나의 이미지가 성범죄에 활용될까봐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요구할까봐	피해 시 부모님, 선생님, 경찰이 보호해주지 않을까봐	
전 체	2,316	1.86	2.10	1.96	1.60	1.52	
성별	여성	1,122	1.98	2.31	2.21	1.76	1.57
	남성	1,194	1.74	1.90	1.72	1.44	1.48
t		26.761(1)***	66.029(1)***	103.655(1)***	64.455(1)***	5.869(1)*	
그루밍 피해	있음	442	2.12	2.37	2.22	1.84	1.76
	없음	1,874	1.79	2.04	1.89	1.54	1.46
t		31.624(1)***	26.738(1)***	27.312(1)***	35.605(1)***	38.184(1)***	
그루밍 목격	있음	556	2.08	2.35	2.22	1.76	1.76
	없음	1,760	1.79	2.02	1.87	1.54	1.44
t		29.788(1)***	29.778(1)***	36.589(1)***	21.420(1)***	54.579(1)***	

주 | 표의 값에 표시된 *은 두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함을 의미함(*p<.05, ***p<.001)

외로움·정서적 취약성과 그루밍 피해의 연관성

○ 외로움·정서적 취약성 높을수록 그루밍 피해 위험 증가, 아동·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필요성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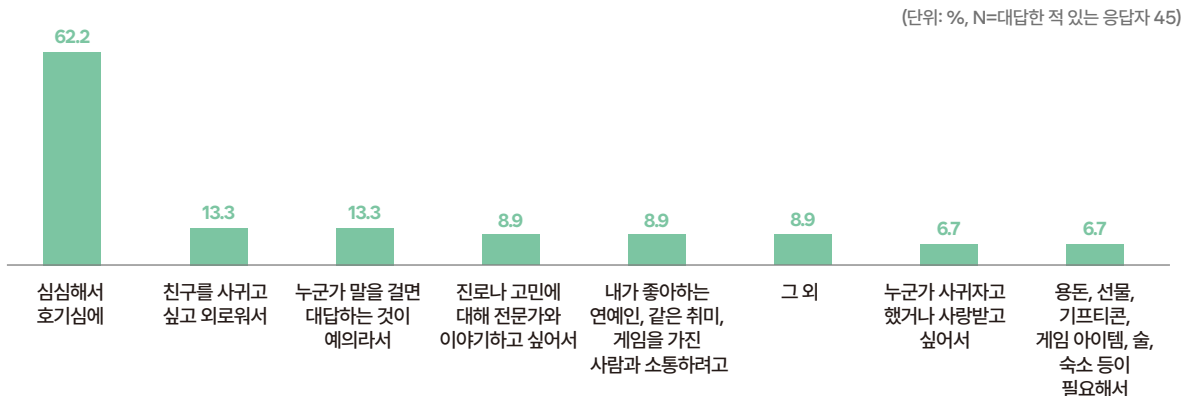
- 최근 일상생활과 주변 관계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로 물었을 때, '나는 외로움을 잘 느낀다'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나는 고민을 터놓을 친구가 없다', '우리 집은 가난하다' 등의 순으로 응답됨.
- 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대부분의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모든 문항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드러남. 이는 피해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줌.



[그림 5] 일상생활 및 주변 관계에 대한 인식과 온라인 그루밍 피해 경험 여부

○ 심심함·외로움이 그루밍 접근의 통로, '예의'에 대한 인식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

- 온라인에서 접근한 사람에게 대답한 이유로는 '심심해서 호기심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친구를 사귀고 싶고 외로워서', '누군가 말을 걸면 대답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남. 아동·청소년들은 누군가의 적극적인 유인을 평소 심심함을 해소할 수 있는 놀이 과정이나 친구를 사귀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누군가 말을 걸면 대답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지 않았는데,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보호자, 교사, 시민 등에게 디지털 성인지 리터러시를 비롯한 판단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함.



[그림 6] 대화를 나누자거나 대가를 제안한 사람에게 대답한 이유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예방을 위한 서울시 정책 과제

○ 서울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및 성착취 피해 예방 담당 기구 신설

- 가해자의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등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위험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 기반 대응 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 아동·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많은 시민들이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할 수 있는 양성 시스템이 요구됨.
- 아동·청소년 및 시민·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성별 차이가 반영된 안전계획 수립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 위의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또는 성착취 피해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기구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 대상별 심리·정서 지원 강화

- 안전하게 일상이나 성에 대한 고민, 궁금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 채널을 마련하고,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 및 기타 의료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계선 지능인 아동·청소년 맞춤형 예방 교육 자료 개발, 다문화·이주민 가정의 아동·청소년 피해 지원 채널이 마련되어야 함.

○ 서울시 인터넷 사업자 대상 교육 강화

- 현재 인터넷 사업자 교육 대상은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사업자로서 SNS·커뮤니티, 인터넷 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중소형 플랫폼의 윤리적 운영에 대한 제도적 개입이 어려움.
- 향후 관련 교육 및 범죄 예방 의무를 중소형 플랫폼으로도 확대하고, 교육 이수 인증이나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여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제안함. 교육에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인터넷 사업자의 인식 개선과 운영상의 책임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지원기관 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기존의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및 성착취 피해 예방·지원 기구들과의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여 상시적 논의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경찰청, 서울시의료인 협회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제안함.
- 서울시 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피해 또는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아동·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대응 절차, 연계 기관 정보, 신고·상담 방법 등을 포함한 안내집 제작·배포를 제안함. 이를 통해 현장에서 위험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식별하고 신속하게 지원 체계로 연계할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연구자: 김보화(정책개발실 여성가족정책팀)